

배포일: 2025.05.25. 보도일: 2025.05.26.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오픈 스토리지 2025》 개최	5	3	www.ggcf.kr	부 서: 예술본부 예술사업팀 담 당: 윤가혜 전 화: 031-231-0841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오픈 스토리지 2025》 개최

- ▶ 도심 속 열린 창고에서 만나는 49작가/팀의 현대미술작품 64점
- ▶ 2025년 5월 30일(금)부터 6월 27일(금)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동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이 오는 5월 30일(금)부터 6월 27일(금)까지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동에서 《오픈 스토리지 2025》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소장품 컬렉션 '경기미술창고'를 통해 2024년 새로 수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획전이다. 경기 청년 신진작가들의 작품 23점과 대중미술 장르 작품 19점을 비롯하여, 회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 총 64점이 전시된다.

《오픈 스토리지》는 공공 소장품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 장소인 공작1967동은 문서고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쓰임을 다한 기존의 문서 선반을 재구성해 미술작품 보관 랙으로 다시 사용하였고, 창고의 물리적 구조와 분위기도 그대로 살렸다. 관람객은 열린 작품 창고 안에서 작품이 보관된 랙 사이를 자유롭게 지나다니며 작품의 표면과 질감, 뒷면까지 세세히 관찰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경기미술창고 컬렉션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경기미술창고는 2020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경기지역 시각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이다. 당시 전시와 작품 판매가 중단된 상황에서 재단은 예술가들의 생계 안정과 창작 활동의 지속을 위해 작품 203점을 매입해 공공이 소유하는 미술 컬렉

션을 조성했다. 이후 컬렉션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장하고자, 미술 제도권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청년 신진작가들의 작업과 그래피티 아트, 아트토이, 일러스트 등 비주류 대중미술장르의 작품을 수집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302점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 작품들은 국내외 여러 예술공간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공공시설 등 지역 사회 곳곳에 대여되어 도민들과 일상에서 만나고 있으며,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신규 작품 구입에 사용되어 공공 컬렉션의 순환과 지속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전시 개요

- 전 시 명: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오픈 스토리지 2025》
- 전시기간: 2025년 5월 30일(금) ~ 6월 27일(금) /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 전시장소: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동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전시작품: 회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등 총 64점
- 참여작가: 총 49명(팀)

Enzokorea, JINSBH, soon.easy, XEVA, 경문규, 구헌주, 권세진, 권혜경, 김도이, 김민준, 김성훈, 김솔인, 김쥬쥬, 나나와 펠릭스, 무진형제, 민유진, 민혜원, 박미라, 박지연, 박진희, 박혜빈, 반민수, 배정훈, 손지훈, 신예린, 양우경, 오소영, 오하은, 육찬, 이수형, 이예진, 이주빈, 이현지, 장수익, 장예진, 전효경, 정연지, 정준영, 조민아, 조민지, 조재하, 진윤희, 진현진, 최봄이, 최은서, 한의도, 홍기원, 홍이현숙, 황진호

-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전효경 〈재난이라는 화재〉, 2024, 장지에 수묵, 72.7×90.9cm,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창고 소장

전효경, 〈재난이라는 화재〉, 2024

지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을 마주하며 사람들은 종종 지구의 종말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이 인간의 종말일 뿐, 지구의 종말은 아니라고 말한다. 작가는 이 지점에서 출발해, 철저히 지구의 입장에서 작품을 구성했다. 인간은 지구에 해를 입히는 존재이며, 그런 인간에게 일어나는 재난이 지구로서는 오히려 화재다. 작가는 운석 충돌, 화산 폭발, 화재, 홍수, 지진, 태풍,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재난들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각각의 재난은 두렵고 무기력하게 표현되기보다는 화려하고 유쾌하며 장식적인 이미지로 변주된다. 이는 재난을 고통이 아닌 해방으로, 파괴가 아닌 정화로 받아들이는 지구의 시선을 반영한다. 키치하고 경쾌한 화면을 통해 작가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볼 것을 제안한다.



손지훈 〈입덕궁녀도〉, 2023, 디지털 페인팅, 미디어,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창고 소장

손지훈 〈입덕궁녀도〉, 2023

‘입덕’은 특정 분야나 대상에 깊이 빠져들어 열정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현상을 뜻하는 신조어다. 손지훈 작가는 이 현대적 개념을 전통적 인물인 궁녀의 이미지와 결합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다. 작품 속 궁녀는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궁중 생활에만 매몰된 존재가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입덕하여 본인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에 빠진 궁녀를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대중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는데, 작가는 전통 복식과 함께 스타워즈의 상징적 요소들을 재치 있게 결합하여 시대를 초월하고, 그 안에 오늘날 개인의 취향과 주체성을 유쾌하게 녹여내었다.

